









전/강/칼/럼 (8)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정신건강 상담가)



“짜임새 있는 생활(Structure of Life)”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 때문에 생활의 무질서함을 경험한다. 짜임새 없는 생활로 많은 일에 즉흥적으로 임하게 된다.

한다. 물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우리의 자녀들이 답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시간 관리에 실패, 학업에 대한 욕구를 상실한 자녀들을 볼 때가 있다. 그들은 전자 게임과 각종 유희에 빠져,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

다행히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짜임새 있는 생활 습관을 가르친다. 문제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줄 것인가이다.

그러나 지나친 시간 관리는 오히려 개인의 성격 형성에 무리가 될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시간 관리 일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강박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원만한 성격 발달과 더불어 삶을 재미있고 활발하게 하는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는 삶의 패턴을 기르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대부분은 늘 버락치기식으로 문제에 인해 왔다. 시험 준비도 그랬고 거의 만사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처리

한다. 물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우리의 자녀들이 답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시간 관리에 실패, 학업에 대한 욕구를 상실한 자녀들을 볼 때가 있다. 그들은 전자 게임과 각종 유희에 빠져,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

다행히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짜임새 있는 생활 습관을 가르친다. 문제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줄 것인가이다.

그러나 지나친 시간 관리는 오히려 개인의 성격 형성에 무리가 될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시간 관리 일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강박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원만한 성격 발달과 더불어 삶을 재미있고 활발하게 하는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는 삶의 패턴을 기르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대부분은 늘 버락치기식으로 문제에 인해 왔다. 시험 준비도 그랬고 거의 만사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처리

한다. 물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우리의 자녀들이 답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시간 관리에 실패, 학업에 대한 욕구를 상실한 자녀들을 볼 때가 있다. 그들은 전자 게임과 각종 유희에 빠져,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



브라질 동북부 베르남부고 선교여행기 (4)

“우리는 하나였다”

신속자 선교사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의 영혼을 구해 주셨고 그들 자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요단에 밭을 들어 놓자 흥해는 드디어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말이다.

오늘날도 바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기억하신다는 말이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이곳 쏘리딩 외진 씨저우(벨장)에 모인 무리에게 잘 구워진 고기와 음식들이 나뉘고 이곳저곳에 자리 잡고 식사하는 무리의 모습은 마치 그 옛날 베네타다 뜰에서 오병이어를 먹던 광경의 축소판 같았다.

그녀의 딸이기에 경쾌하게 기타를 치고 모두가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축제가 시작되었으니 모기도 덩달아 찬양에 흥겨워 더 더욱 열심히 먹이를 찾아 뺏아 대니 영혼은 천국이요 육신은 지옥이었으나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의 입재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드렸다.

더러는 덩실덩실 몸을 날리며 춤을 추기도 했고, 산전초목도 바람에 흔들리며 천지주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그 밤은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오직 주님뿐이었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도 만족,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랴! 언제인가 뉴욕에서 청소년수련회에서 은혜받은 청소년들이 “나는 모기가 좋아”라며 찬양하던 일이 생각났다.

드디어 쏘리딩교회 봉헌예배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들을 뒤로 하고 저녁예배를 드리기 위해 따비라교회를 향했다. 베네타다교회에 건축한 교파라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7시반이었다.

시편 121편을 내용으로 남편 김우선 목사가 설교를 하였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성도들은 가랑비를 맞으며 동양인 부부를 둘러싼 채 회화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넬슨 목사에게도 믿음으로 종교차별을 약속했다.

주님은 우리 부부의 사역의 길목마다 기도할 때 가슴으로부터 불타오르는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때에 맞추어 주님의 멋진 방법으로 성취해 나가셨음을 확인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심어주셨던 꿈들을 때를 맞추어,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어떤 때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의 선지로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들이었음을 필자는 알고 있다.

두 번 발을 떼어놓던 키가 큰 남편이 전기 줄에 감긴 채 세면 벽에 박힌 무슨 나무토막에 머리를 부딪치며 “아!” 소리를 지르는 가 했더니 주저앉은 침대는 지압 마사지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라더니 그 동글동글한 스프링에 얹은 덮개를 씌워 놓았는데 앉자마자 빠져거리며 스프링이 튀어 오른다.

이번에는 좁디좁은 방안에 걸터 다닐 길을 만들려고 60년대 텔레비전을 받쳐 놓은 받침대를 구석으로 밀어 넣으려는 남편을 도우려고 조그마한 냉장고를 옆으로 끌어당겼더니 냉장고 뚜껑이 벗겨졌다.

이번에는 좁디좁은 방안에 걸터 다닐 길을 만들려고 60년대 텔레비전을 받쳐 놓은 받침대를 구석으로 밀어 넣으려는 남편을 도우려고 조그마한 냉장고를 옆으로 끌어당겼더니 냉장고 뚜껑이 벗겨졌다.

이번에는 좁디좁은 방안에 걸터 다닐 길을 만들려고 60년대 텔레비전을 받쳐 놓은 받침대를 구석으로 밀어 넣으려는 남편을 도우려고 조그마한 냉장고를 옆으로 끌어당겼더니 냉장고 뚜껑이 벗겨졌다.

그냥 돌아온 남편이 형편대로 살라고 했다. 수건도 하나밖에 없어서 남편과 사

이종계 반쪽씩 나누어 써야 했다. 어쩌면 그렇게도 철저히 방안의 가구들은 전쟁을 겪은 상이군인들만 모야다 놓았는지...

상이군인들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다 다쳤다지만 손님을 받은 건지 재물은 건지...그것도 예수님 때문이라 생각하니 무한감사사지만 정말 건달 수 없었던 것은 후덜덜한 부부의 기교 나쁜 공기와 합세한 화장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냄새야말로 실로 죽을 지경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잠을 잤는지 안 잔건지 혼미한 밤이 지난 후에는 그 분위기와 공기에도 어느 만큼 익숙해졌는지 남편과 아침예배를 드리고 나서 방을 빠져나와 현관에서 네이말 목사를 기다렸다.

네이말 목사 부부와 함께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부흥을 위한 이련저런 대화를 마친 뒤 그들의 집을 방문해 커피 한잔을 마시고 난 후 밤 11시 20분 해시퍼행 버스를 타기위해 터미널에 도착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교를 시작한지 16년 동안 현지의 목사들로부터 밤 한 끼 먹자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떨려왔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교를 시작한지 16년 동안 현지의 목사들로부터 밤 한 끼 먹자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떨려왔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교를 시작한지 16년 동안 현지의 목사들로부터 밤 한 끼 먹자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떨려왔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교를 시작한지 16년 동안 현지의 목사들로부터 밤 한 끼 먹자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떨려왔다.

Worldwide Church Announcements grid with 48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service times.





# 2011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 “월드미션대학교, ATS 인준 받다!”

월드미션대학교는 2011년 6월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학원협의회)의 인준을 취득했다. ABHE와 TRACS에 이어 ATS의 인준까지 받음으로써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부와 대학원 전체에 걸쳐 미 교육부 산하 인준기관의 정식 인가를 모두 받은 미 서부 최초의 한국계 기독교 대학교가 되었다.

## 새로운 꿈을 위한 시작! 월드미션대학교와 함께

### 1. 미군 군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군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 ▶ 황지용 미군대위
  - 2011년 목회학석사 졸업생
  - 현재 하와이에서 군목으로 복무
- ▶ 김명환 미군 군목 후보생
  - 현재 목회학석사 재학중
  - 독일에서 복무

### 2. 통신 과정으로 미 정규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이 과정을 통하여 학사 129명, 신학석사 17명, 목회학 석사 152명이 미 정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유아교육교사/원장 자격증 과정과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을 다수의 학생이 마쳤습니다. 현재 100여명의 재학생이 통신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 3. 펠 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부 과정).

펠 그랜트(Pell Grant)는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1년 가을학기에 50여명의 학부생이 이 혜택으로 학비 걱정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4. 학생 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부, 대학원 과정).

학생 용자는 학부, 대학원 모든 과정에 가능하며, 졸업 후 낮은 이자로 장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가을학기에 10여명의 재학생이 장기 학생용자 혜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5. 상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상담 훈련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한 상담 사역자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가정사역 상담자, 목회 상담자로 교회와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6. 타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바이올리 대학교, 탈봇신대원, 플러신대원, 아주사 신대원, 클레어몬트 신대원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졸업자가 UCLA 합창지휘 박사과정, Peabody Institute 연주자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 7. 학위 과정

#### ▶ 박사 과정

- 목회학과 (D.Min / 유학생 I-20 발급)

#### ▶ 석사 과정

- 목회학과 (M.Div)
- 신학과 (M.A)
- 음악과 (M.A.M)

#### ▶ 학사 과정

- 성서신학과 (B.A.B.S)
- 기독교 상담학과 (B.A.C.C)
- 음악과 (B.A.M)

#### ▶ 단기 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 / 유아교육 교사 / 유아교육 원장 과정

● 원서 접수마감: 2011년 8월 12일(금) ●